

"상황마다 다른 배수여건... 스마트 농업 확산에 최선"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23-07-06 제12면

5일 만난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은 피곤한 기색이 가시지 않은 채 민방위복을 입고 있었다.

전날(4일) 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엔 많은 비가 내렸다.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정 본부장을 비롯한 본부 직원들은 밤새 좀처럼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그와 만난 본부 내 재난안전상황실 모니터엔 관내 저수·배수시설 현장이 실시간으로 비춰졌다.

"지금은 비가 그쳤지만 아직 비상 체제"라며 정 본부장은 "비가 국지적으로 매우 많은 양이 단시간에 쏟아지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안심하기가 어렵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이 총괄하는 경기지역본부는 경기·인천·서울지역을 관할한다. 이름 그대로 원활한 농·어업 영위를 위한 각종 활동을 하는 게 공사의 업무이지만 상당부분 도시화된 수도권에선 보다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는다.

공사가 관할하는 저수·배수시설 역시 본래는 농업용수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만 호우 시 물이 넘칠 경우 자칫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더 다양한 측면에서 세심하게, 철저히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 본부장 설명이다.

'수도권 입지' 다양한 역할 필요

정인노 본부장 "변화 빠르게 대응"

정 본부장은 "경기도만 해도 벼 농사가 중심이었지만 점점 빠르게 농업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또 경기도내에 택지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는 점도 관건이다. 산과 도시간 비가 내릴 때 물이 저수지로 유입되는 속도, 벼를 재배하는 논과 채소를 키우는 비닐하우스 등의 배수 여건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달라지는 상황들을 두루 고려해 여러 정책 시행과 위험 대비에 적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농지은행 사업 등 기존에 공사가 중점을 뒀던 사업들에 주력하는 한편, 스마트 농업 확산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다.

경기도는 본부와 함께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스마트팜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평균에

올 11월 관련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두 명의 청년 농부가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팜에서 미래 농업을 선도해나갈 예정이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사업 역시 용인과 평택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 본부장은 "농업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그에 따라 공사에서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도 달라지고 있다. 스마트 농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라며 "우리가 설계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연내에 경기도만의 스마트 농업이 시작될 예정인데, 20개까지 관련 시설을 확대해보려고 한다.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게 공사 본연의 취지인 농·어업 생산성 증대, 농·어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